

연합과 회복

* 10/23(금) 예배소서 1-6장

1-3장 하나님의 축복, 신자들의 특권

〈이미〉 :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장 인사와 축복, 찬송과 기도

2장 한 새사람 :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3장 바울의 사명, 바울의 기도

4-6장 그리스도인의 책임

〈아직〉 : 이루실 구원, 성령을 통해

4:1-16 하나님 되게 하신 성령, 직분자들

4:17-5:20 새 사람, 새로운 생활

5:21-6:9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6:10-20 영적싸움 6:21-24 추천 및 축도

Before 출치며 읽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1:10)?

각종 경고가 현실화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잔혹한 사건과 사고들.

인종과 민족, 국가 분쟁으로 인한 전쟁과 난민들.

인간의 욕망으로 병든 피조세계. 그로 인해 병드는 인간.

손쓸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배소서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After 묵상하기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하나 됨〉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 합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굴복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거듭나며, 분열된 인류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인류로 창조됩니다.

잃었던 아름다움과 선함, 조화와 평화가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1:10, 1:21-22, 2:14-16, 3:6)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위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하시며,

만물을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며 돌보는 분이십니다(4:6).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할 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충만케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를 온전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기초이며, 모퉁이 돌입니다(2:20).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5:22)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신랑으로서, 사랑으로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2:16),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며(2:22),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십니다(4:13).

만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참고도서

두란노 How 예배소서

백주년기념성서주석 예배소서

신약개론(데이비드 A 드실바)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도 <소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의 방대한 영토 내에서 활발한 이주가 일어나면서,
상업적 거래와 문화, 종교, 이념들의 교류 또한 빈번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 불황이나 조직적인 착취 행위, 로마의 신격화 등으로
정신적 변화와 종교 혼합주의 형태, 개인주의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분별하며 대적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라(4:14)”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6:11-12)”

또한 교회들은 각종 분열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① 교회의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되려는 이들은 자신이 <몸의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만물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2, 4:15, 5:23, 2:21-22, 4:15-16)

②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2:11-22, 4:4-6).

교회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지음 받은 <한 새사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된 것의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③ 직분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4:1-16)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합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할 일은 명확합니다.
흔탁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④ 가정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5:22-6:9)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모두 각자 받은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각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통독의 맥 잡기

1-3장 하나님의 축복, 신자들의 특권

〈이미〉 : 이루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1:1-2 인사와 축복

1:3-14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한 영적 축복

1:15-23 바울의 기도

2:1-10 하나님의 구원하심 :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11-22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 한 새사람

3:1-13 바울의 사명 :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메신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선포

3:14-21 바울의 기도 :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기를

사랑으로 견고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4-6장 그리스도인의 책임

〈아직〉 : 이루실 구원, 성령을 통해

4:1-6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 한 몸/성령/소망/주님/믿음/세례/하나님

4:7-10 성령이 각자에게 주신 것 : 부르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4:13-16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할 일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4:17-5:20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5:21-6:9 아내와 남편/자녀와 부모/종과 상전

6:10-20 영적 싸움

6:21-24 추천 및 축도